

독도와 일본의 무주지선점 논리*

곽진오**

(e-mail : ojkwak@nahf.or.kr)

< 목 차 >

- | | |
|-------------------|-------------|
| 1. 서론 | 4. 일본의 독도인식 |
| 2. 한일양국의 독도쟁점과 이해 | 5. 안용복과 독도 |
| 3. 한국의 독도인식 | 6. 결론 |

키워드 : 獨島(Dokdo), 無主地先占論(the theory of acquired terra nullius), 固有領土論(inherent territory), 日露戰爭(Russo-Japanese War), 矛盾(inconsistent)

1. 서론

110여 년 전 일본이 독도(獨島)¹⁾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1904년 러일 전쟁을 대비해서였다. 일본은 당시 울릉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러시아 군함의 동해 항해를 감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도가 장차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1905년 2월 22일 독도에 대해 자국 영토편입을 선언하는 시마네현 고시(告示)⁴⁾호를 행하게 된다. 고시에서 독도의 명칭을 이전의 이름이었던 송도(松島, 마츠시마)에서 지금의 이름인 죽도(竹島, 다케시마)로 개칭한다. 전후 일본은 동 고시를 통해 독도‘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바탕을 둔 영유권 주장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주장에 모순이 생기는 것은 독도‘고유영토론(固有領土論)’이 등장

* 이 논문은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3A2054749).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정치학박사

1) 이 글에서는 한국 측에서는 독도, 일본 측에서는 다케시마(竹島)로 부르기로 한다.

하면서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1953년 7월 13일자와 1954년 2월 10일자의 두 번에 걸쳐 일본외무성이 한국에 보내온 구상서에 독도는 예로부터 일본과는 불가분의 일부라며 기존의 독도‘무주지선점론’에 독도‘고유영토론’을 혼합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논리에 대해 한국은 이러한 주장은 억지이며 모순이라고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을 일축한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비판에 대해 아직까지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1905년 독도는 결코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일본의 독도 편입 자체도 영토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국가의 유효한 법률적 행위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증거들이 있다. 이는 일본외무성이 2008년 2월부터 독도관련 홈페이지에 독도가 무주지 이었다는 주장내용을 볼 것 같으면 “1900년 대한제국칙령 41호(이하 칙령41호)에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라면 왜 칙령에 독도를 사용하지 않았는가”²⁾ 라 하면서 지금이라도 독도문헌이 발견되면 한국영토로 인정할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은 칙령41호를 통해, 울릉군이 울릉도뿐만 아니라, 죽도(대섬, 울릉도 연안의 소도), 석도(독도)까지 관할토록 정하면서 울릉도의 행정단위를 군으로 승격시켰다. 이 조치는 서울주재 일본공사에게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을 근절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직후에 취해졌으며, 동칙령의 내용은 관보에도 게재된 만큼,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일본의 주장은 합리성을 결여한 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독도는 무인도이었을지는 몰라도 무주지 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는 조선이 오래 전부터 취해오던 수토정책(搜討政策)의 일환으로 섬을 비워두며 관리하였을 뿐 일본식으로 해석한 공도정책(空島政策)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섬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 고시40호 사실을 대한제국에 알리지 않았으며 동경에 있는 외국공관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1876년에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 The Bonin Islands)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 이전 동경에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공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본에 의한 독도 무주지선점론과 고유영토론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기소모적 논쟁으로 비취 질 수 있다.

본 논문과 연관되는 선행연구 들로는 ‘일본의 독도무주지 선점 논리모순’이라

2) www.mofa.go.jp/mofaj/area/takeshima/(일본외무성 홈페이지, 접속: 2016.1.18)

는 관점에서 다수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신용하 편저(1998, 1999, 2000, 2001, 2002)³⁾는 조선왕조시대 독도관련 자료에서 일본 막부문서, 전후 한일왕복외교문서까지 ‘한일관계와 독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연구로는 김학준(2010)⁴⁾의 『독도연구』와 최장근(2014)⁵⁾의 『한국영토의 고유영토론』, 그리고 송휘영(2014)⁶⁾의 『일본향토 사료 속의 독도』인데 이 연구들은 지난 20여 년간 한일양국에서 발행된 독도관련 논문과 日本史料분석을 통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재확인하데 그치고 있다. 그래서 기 선행연구들은 현재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양국이 벌이고 있는 영유권쟁점에 대한 비교분석이 제한적이라는데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간과했던 한일양국의 독도관련 쟁점비교연구를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이 왜 모순인지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 서론에서는 일본의 독도무주지 선점과 고유영토주장의 모순에 대해 분석하고, 제2장에서는 한일양국의 독도영유권주장과 관련해서 주요 쟁점비교 및 지리와 자연을 분석했으며, 제3장은 한국에서의 독도인식과 제4장은 일본의 독도인식을 각각 고문헌과 사료를 통해 비교 분석했다. 그리고 제5장은 당시 한일양측의 사료분석으로 안용복의 행적에 대해 분석했다. 결론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와 무관한 역사적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 교육하는 것은 미래 한일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한 우려와 이를 극복하기위한 제안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이 논문이 학계에 기여 할 수 있는 점은 일본에 의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모순을 입증하고 동시에 일본의 영토민족주의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는데 있다.

2. 한일 간의 독도에 대한 쟁점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독도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러나 일본 또한 한국과 유사한 내용으로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⁷⁾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이 명백한 한국의 영토인

3) 愼鏞廈 編著 『獨島領有權 資料의 探究』 (독도연구보존협회, 1,2,3,4,5권).

4) 김학준 (2010) 『독도연구』 동북아역사재단, pp.178~186.

5) 최장근 (2014) 『한국영토 독도의 고유영토론』 제이앤씨, p.347.

6) 송휘영 (2014) 『일본향토 사료 속의 독도』 선인, p.186.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한일양국관계를 손상시키는 일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주장한다.⁸⁾ 그러면서 '독도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한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이는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공식문서에 의해 증명되고 있으며, 일본 스스로도 수차례에 걸쳐 독도가 일본과 무관한 영토임을 인정한 역사적 선례가 있다'등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⁹⁾ 한편 일본역시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하 자료표는 역사쟁점과 시기에 있어서 한일양국의 독도관련 주요주장내용이다.

〈자료. 1〉 독도관련 한일양국의 주요쟁점에 대한 주장

쟁점	한국 측 주장	일본 측 주장
于山島는 독도인가	우산국은 울릉도 우산도·삼봉도는 독도	우산도·삼봉도는 울릉도
안용복의 공술이 사실인가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	신뢰할 수 없다
역사상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것은 누구인가	다케시마(竹島) 도해금지(1696)는 울릉도·독도 영유권 재확인	도해금지대상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음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	다케시마(竹島 울릉도)에 대해서만 기록, 마츠시마(松島)는 독도가 아님
지적편찬(地籍編纂)관련 「태정관(太政官)문」(1877)	죽도 외 일도(竹島外一島),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정	인정한 것이 아님
「대한제국 칙령 41호」(1900) 석도(石島)는 독도인가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하도록 함	아님
1905년 편입 결정, 시마네현(島根縣)고시 유효성	일제침략에 의한 것, 국제법적 효력이 없음	유효함
「울도군수 심홍택 보고서」(1906)	독도는 울도군 소속이었음	독도를 부속도서로 생각하지 않음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하거나 또는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의 독도영토

7) 일본역시 독도(竹島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 비취볼 때도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의 고유영토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竹島は、歴史的事實に照らしても、かつ國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國固有の領土です。www.mofa.go.jp/mofaj/area/takeshima/(일본외무성홈페이지, 접속: 2016.1.18)

8) http://dokdo.mofa.go.kr/kor/index.jsp(한국외교부홈페이지, 접속: 2015.7.21)

9) http://dokdo.mofa.go.kr/kor/index.jsp(한국외교부홈페이지, 접속: 2016.1.18)

주권행사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독도를 지리와 역사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에 의한 독도영유권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도는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중간쯤에 위치한 섬이다 (북위 37° 14' 26.8", 동경 131° 52' 10.4"). 실제, 독도는 하나의 섬이 아니라, 여러 도서지형물의 집합체이다. 즉, 독도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두 개의 주 섬과, 주변에 산재한 89개의 암석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도와 서도의 면적은 각각 73,297㎡, 88,740㎡이며, 독도전체의 면적은 187,554㎡이다. 그리고 독도는 독특한 생태계를 갖고 있다. 독도의 서도에는 물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소량의 담수가 생산되고 있으며, 독도를 덮고 있는 얇은 토양과 이끼로 덮인 화산암들은 70~80 종의 식물과 22종의 조류(鳥類) 그리고 37종의 곤충들의 서식지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섬 주변 해역은 100여종의 어류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서식처이기도 하다. 독도는 한반도의 최동단(最東端)으로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 중요성 외에도, 독도는 한국어민들의 어로작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동단 지진 관측소 및 천체 관측소로 이용되는 등 실질적 중요성도 제공해오고 있다.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는 『세종실록지리지』(1454)에는 예로부터 한국인들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생각해 왔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그 예가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남동쪽에 있으며,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볼 수 있다”¹¹⁾ 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일본이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1667)를 통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시기보다 210여년 앞선다.

3. 한국의 독도인식

오늘날 한국과 일본은 이 섬을 각각 독도와 다케시마라 부른다. 그러나 이 명칭들이 채택되기 전에는 다양한 이름들이 독도를 부르는데 사용되었다. 독도는 한국에서 우산도(于山島), 가지도(可支島), 석도(石島) 등으로 불리어 왔다 (한국어에서 접미어 ‘도’는 섬을 의미). 그러나 이러한 이름 중에서도 우산도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었고,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석

10) 구체적인 독도생태계관련 내용은 동북아역사재단 발행(2015.02) 「우리 땅 독도를 만나다」 참조.

11)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1454) 『세종실록지리지』 권153,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조.

도와 독도가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했다. 석도와 독도는 ‘돌섬 또는 독섬’의 한문표기이며, 독은 전라도 방언으로 돌을 의미하기에 19세기 중후반에 200여 명의 전라도사람들이 울릉도에 이주해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독도가 돌섬으로 불리어졌고 돌섬은 바위섬을 의미한다. 아래설명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독도관련 ‘石’과 ‘獨’자가 들어간 지명들의 예들이다.

〈 자료. 2 〉 『朝鮮地誌資料』 17-23(전라남도 편)에 나온 지명 중 ‘石’과 ‘獨’자가 들어간 지명

지명	언문	비고(필자)	지명	언문	비고
石峴峰	돌고개	돌->石)	石橋湫	독다리보	독->石
石溪	돌넷	돌->石	石湫	독보	독->石
石頭山	독머리산	돌->石	石犬峙	독개재	독->石
石峴	돌고개	돌->石	石窟山	독굴매	독->石
石谷	돌고개	돌->石	石井坪(谷)	독정평(굴)	독->石
石峴峙	돌개재	돌->石	石峙	독갯재	독->石
石峴坪	돌고개들	돌->石	碑石坪	비독거리들	독->石
石橋坪	돌다리들(평)	돌->石	石內谷	독안이고랑	독->石)
石峴	독고개	독->石	獨山	똥피	똥(獨)
石谷	독굴	독->石	犢岩坪	독매들	독->犢
白石坪	차독박일굴	독->石	瓮峙	독재	독->瓮

〈 자료. 3 〉 『朝鮮地誌資料』 16(전라북도 편)에 나온 지명 중 ‘石’과 ‘獨’자가 들어간 지명

지명	언문	비고			
立石里	선돌	돌->石	石橋坪	독달리들	독->石
立石酒幕	선돌주막	돌->石	立石坪	선독거터	독->石
石隅坪	돌모름이들	돌->石	石亭坪	독정이	독->石
石山	독산	돌->石	石洞峙	독골재	독->石
石湫坪	독보들	독->石	獨山坪	독매들	독->獨

이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지명표기 용례는 예로부터 독도관련 명칭들이 다양하게 불리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한자 이름인 ‘獨島’와 동일한 표기법은 아니지만 혼차 한 용례를 사례로 볼 것 같으면 석도=독도는 동일하게 인식되어져 불리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려우나, ‘독’을 ‘石’으로 혼차 한 용례는 전라남

도가 전라북도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¹²⁾ 그래서 ‘돌섬 또는 독섬’이 그 의미(뜻)에 따라 한문으로 옮겨졌을 때, ‘석도(石島)’라고 표기되는 것이며, 발음에 따라 한문으로 옮겨졌을 때, ‘독도’라고 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에야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일본이 1905년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기 전에도 일본문헌에는 독도라는 한자를 찾을 수 있다.¹³⁾

일본인들은 17세기 이후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로 부르다가, 19세기말 이후에는 리앙꼬도(リヤンコ島), 랑코도(ランコ島), 다케시마(竹島) 등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특히, 주목을 끄는 점은 일본인들이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로,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불러 오다가 20세기 초부터 갑자기 독도를 다케시마로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변경하여 부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1667년 일본에서 출간된 풍토기(風土記)인 『은주시정합기』에, 독도와 울릉도는 각각 마쓰시마(송도)와 다케시마(죽도)로 표기되어 있다. 그때부터 독도를 부르는 일본어명은 마쓰시마이었다. 19세기 후반 경부터는 리앙꼬(또는 랑코)라는 이름도 쓰였는데, 이는 서양세계에서 처음으로 독도를 목격한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일본식 표기이다. 당시 독도를 목격한 프랑스인들은 배의 이름(Liancourt)을 따서 독도를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이라 명명했다. 그 후 리앙쿠르 암은 서양인들이 독도를 부를 때 널리 사용하는 이름이 되었다. 1905년부터, 일본인들은 독도를 현재 명칭인 다케시마로 부르고 있으며, 이는 ‘대나무 섬’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어떠한 일본 측 자료도 바위섬 독도가 왜 대나무 섬으로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4. 일본의 독도인식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근거는 서기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울릉도·독도를 포함하고 있는 우산국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서기 512년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여기에 신라의 이사부가 나무로 만든 사자를 이용한 계교로써 우산

12) 김기혁(2006) “일제 강점기 울릉도 지명의 생성과 변화” 『문화역사지리』 제18권 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3) 『軍艦新高号行動日誌』1904年 9月 25日条, 日本防衛庁戦史部 소장 참조. 이 문서에는 “『リアンコルド』岩韓人之ヲ独島ト書シ. 『리앙쿠르트』 이곳(한국)사람들은 이를 독도라고 쓴다.”로 기록하고 있다.

국을 정복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우산국의 영토는 울릉도 본섬과 그 부속 도서인 독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 두 개의 섬이 존재하고 있다는 우리 조상들의 지리적 인식은 그 후 조선시대에 간행된 『세종실록지리지』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에도 나와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두 책에는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속하는 섬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한편, 독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일본 기록은 17세기 중반의 기록인데, 그 중에서도 일본 이즈모지방(出雲地方)의 관료인 사이토 간스케(齊藤勘助)¹⁴⁾가 편찬한 풍토기인 『은주시청합기』에 잘 기록되어 있다.¹⁵⁾ 『은주시청합기』는 “북서 방향으로 2일 1야를 가면 송도(독도)가 있다. 그곳에서 다시 1일 정도에 죽도(울릉도)가 있다(戊亥間行二日一夜有松嶋 又一日程有竹嶋).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소다케시마(磯竹嶋)로 대나무나 물고기, 강치가 풍부하다. 이 두 섬은 무인의 땅이다. 이곳에서 고려를 보는 것은 운슈(雲州)에서 인슈(隱州, 지금의 오키섬 隱岐島)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 즉 일본의 서북 한계는 차주까지 한다(然則日本之乾地 以此州為限矣)”¹⁶⁾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차주’는 오늘날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을 얘기한다. 더 나아가 은주시청합기에는 오키국(隱岐國)의 서북에 송도, 죽도가 있다는 것을 기록했지만, 오키국에는 포함되지 않고 같은 책의 부속 지도도 도젠(島前)과 도고(後)뿐이고 송도·죽도는 제외되어 있다.¹⁷⁾ 이후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에 의해 은주시청합기를 참고로 그려졌다고 보여 지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1791)역시 독도가 일본의 영역이외에 그려져 있다.

14) 사이토 토요노부(齊藤豊宣)이라고도 한다.

15) “사이토는 운슈·雲州(出雲國, 이즈모노쿠니) 마쓰에(松江)의 마쓰다이(松平藩)의 무사이였다. 간분7년(1667)에 번주 마쓰다이(松平綱隆)가 오키군(隱岐郡)의 군다이(郡代)로 임명했다. 사이토는 오키로 건너가 군 안을 빠짐없이 순시한 후 노인들에게서 들은 전설이나 여러 이야기, 오키의 지리, 절과 산사 산물 등을 기록했다. 그것은 藩主에게 보낼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은주시청합기(인슈시초고기)’이다. 隱州는 隱岐國을 말하는 것이며 그곳에서 보고(視) 들은(聽) 것을 합하여(合)기록(紀)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齊藤豊宣 (2007) 『隱州視聽合紀 독도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p.15.

16) 齊藤豊宣 (2007) 『隱州視聽合紀 독도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p.15.

17) “然則日本之乾地 以此州為限矣”의 해석에 대해 한일 간에는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서북 한계를 나타내는 ‘이주(此州)’가 가리키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울릉도인가 아니면 오키도 인가? 독도의 귀속문제는 ‘이주(此州)’가 어느 섬을 가리키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한국 측은 ‘이주(此州)’가 오키도 이므로 독도는 한국 측에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일본 측은 울릉도이기 때문에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齊藤豊宣 (2007) 『隱州視聽合紀 독도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p.6.

이 지도 제작자 나가쿠보는 에도(江戸)시대 중·후기 출신의 지리학자로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이외에도 「지구만국산해여지전도(地球万国山海輿地全図)」, 「대청광여도(大清光輿圖)」, 『당토역대주도연혁지도(唐土歷代州都沿革地圖)』 등을 제작했으며, 『동오기행(東奧紀行)』, 『안남국표류물어(安南國漂流物語)』, 『장기행역일기(長崎行役日記)』 등을 저술했다. 특히 나가쿠보에 의해 1780년에 제작된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는 10리를 한 치로 하는 축척(약 1/130만)을 이용해 당시로서는 섬세하게 일본영역을 그리고 있다. 지도에 일본 열도의 윤곽은 양호하고, 일본에서 최초로 위선과 경선(경도의 기입은 없음)을 나타내는 등 비교적 정확하게 제작되어졌다. 당시 유포되었던 것은 장식성이 강한 이시가와 토모노부(石川流宣) 제작의 일본지도였기 때문에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후 1811년, 1833년, 1840년, 1846년, 1871년에 증판되어 메이지(明治) 초기에 이르기까지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오키섬의 북서쪽에 함께 그려져 있다. 또한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 두 섬 옆에는 ‘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글귀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기에서 고려(조선)가 보이는 것은 정확히 이즈모(出雲)로부터 오키 섬을 원망(遠望)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1667년에 저술된 현존 최고의 오키 地誌인 『은주시청합기』 권1의 国代記에 나오는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다.¹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에 의해 그려진 삼국접양지도 역시 『은주시청합기』 내용을 신뢰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지도로 나타내고, 글귀도 그대로 적고 있다. 이는 당시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영토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료6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경·위도선 자체가 울릉도와 독도 부분에는 그려져 있지 않다. 또한 한반도 남단의 부산지도 부분에도 같은 공식을 적용시켜 경선과 위선을 그리지 않고 있다. 한편 은주시청합기의 ‘일본의 북쪽경계는 차주를 한계로 한다’는 기록은 일본인들이 독도(송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해왔다. 그러나 위의 구절이 우리 측에 의해서는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가 그들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인용되고 있다.

18) 이 지도에는 죽도 즉, “朝鮮ノ持也(조선의 소유)” 이라고 적혀있고, 「은주시청합기」에서 유래된 구절 “此嶋ヨリ隱州ヲ望 又朝鮮ヲモ見ル” (이 섬에서 은주(오키섬)를 바라보고 또 조선도 본다). 이는 「은주시청합기」의 저자 사이토 호센은 물론 나가쿠보 세키스이 그리고 하야시 시헤이 모두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즉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안용복과 독도

17세기 말 안용복이 두 번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둘러싸고 한일양국은 이견이 팽배하다. 자료1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른바 ‘안용복의 공술이 사실인가’는 양국의 문헌기록을 근거로 당시 안용복의 행적에 대해 진실게임의 양상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이유는 당시 조선의 어부 안용복의 활동으로 조선과 일본이 최초로 정부차원의 외교적 접촉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안용복은 조선의 어부로, 『숙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숙종 19년(1693) 박어둔 이하 사십여 명과 함께 울릉도에서 어로 및 농사 활동을 하던 중 일본 오야가문의 어부들과 충돌하여 일본 오키섬까지 납치당하게 된다. 오키島主는 안용복 일행을 돗토리번(鳥取藩)의 호키슈(伯耆州)태수에게 이송하게 되며, 안용복은 호키슈 태수 앞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인들의 출어를 금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호키슈 태수는 이를 도쿠가와 막부에 보고하고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서계(書契)를 써주어 안용복 일행을 조선으로 귀국하게 하였던 것이다.¹⁹⁾ 이러한 안용복의 활동과 일본 중앙정부의 결정은 원록(元祿)시대(1688~1704)의 일본 측 기록에도 잘 나타나있다. 그러나 안용복의 도일(渡日)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부들의 울릉도침범은 계속되었으며, 결국 안용복은 이의 근절을 위해 두 번째 도일을 감행하게 된다.²⁰⁾ 일본은 안용복의 활동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그의 진술이 거짓이라며 안용복의 도일활동 결과를 부정하려 하지만 안용복 사건은 일본 측 자료에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안용복의 활동을 기록한 일본 측 자료에는 조선통교대기(朝鮮交通大記), 백기민담기(伯耆民談記), 초려잡기(焦慮雜期), 교린고략(交隣高略), 죽도고(竹島考), 인부연표(因府年表) 등이 있다. 1696년 방문에 서는, 오키(隱岐)²¹⁾의 무라카미家 문서가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오키에서는

19)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즉 안용복이 에도 막부에서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취지의 서계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기록은 아직까지 한일 양측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안용복이 쇼군(將軍)의 서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1693년의 일이다. 돗토리번에서 에도로 보내져, 막부에서 후하게 대접받은 뒤, 서계를 받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쓰시마번에 의해 몰수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아직까지 그 어느 것도 밝혀진 바가 없다.

20) 2005년 일본 오키섬 무라카미家的 서고에서 발견된 것으로 아래그림 「江原道の中に「竹嶋 松嶋有之」라고 써져있다.」江原道에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소속임을 朝鮮之八道에 설명되어 있다.

「조선지팔도」를 보여주고, 강원도 안에 죽도와 송도, 즉 울릉도와 자산(우산)도가 있음을 주장했다. 두 섬이 함께 조선의 영토라고 하고, 그 사실을 일본의 관리에게 기록하게 한 것은 중요하다. 이어서 돛토리번에 가서, 돛토리 번주와 만나 항의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실현되지 못했다. 단, 배 안에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쇼군에게 올리는 서물, 혹은 이나바(因幡) 영주에게 드리는 서물(公方様へ差上候書物、或は因幡領主に差出候書物)」이 돛토리번에 의해 압수되었던 일이 『죽도기사』에 나타나있다. 그리고 1697년 2월에 쓰시마번이 동래부사에게 던진 질문 속에서 「지난 가을, 귀국 사람이 지편(紙片)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조정의 영에 따라 나온 것입니까?(去秋、貴国人呈單の事あり、朝令に出ずるかと)」한 것에 대하여 조선 측에서는 「바람에 떠다니는 어리석은 백성에게 대해서는, 설령 조작이 있다한들 조정에서 아는 바가 아니다(漂風の愚民に至りては、たとい作為する所あるも、朝家の知る所にあらず)」라고 회답하였고, 게다가 1698년 3월 문서 속에서도 「서장을 올린 일에 관해서는, 진실로 그 경거망동의 죄가 있다(呈書の事に至りては、誠に其の妄作の罪あり)」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관백(関白) 앞으로 보내는 안용복의 문서가 제출되어 있었던 사실은 한일양국이 함께 인정하고 있다. 결국 안용복은 조선인으로서 처음으로 송도(우산도)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이 죽도(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강원도에 소속됨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 그 결과로서 조선에서는 우산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강계고(疆界考)』²²⁾(1756년)이나 『동국문헌비고』(1770년) 속에서 「우산은 즉 왜(倭)가 말하는 송도이다(于山は即ち倭の所謂松島也)」라고 기록하게 된 것이었다. 결국 안용복의 2차 도일의 결과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고 양도(兩島)에 대한 일본인들의 도해(渡海)를 금지하였던 것이다.

1696년 1월,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울릉도·독도에의 도항이 금지되었고, 1696년 1월을 계기로 일본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정식으로 승인하고, 이 ‘죽도 일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1696년 1월에 당시 막부가 일본인에게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으며 그 증거로 이후에도 울릉도 독도 근처에서 일본인들을 보았다는 기록을 예로 들며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호리가즈오(堀和生)²³⁾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1) 시마네 반도 북부의 도서(島嶼).

22) 『동국문헌비고』와 함께 신경준이 편찬한 조선의 역대판도도(歷代版圖圖)

“17세기 일본인의 송도=독도에서의 어업은 어디까지나 다케시마=울릉도 진출을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케시마 도항 금지와 함께 끝났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그 증거로 이후 오오야·무라카와 양가가 송도만을 목표로 여행한 일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겐로쿠기(元祿期)에 다케시마=울릉도로의 도항이 막부에 의해 금지된 후에도 산인(山陰)지방의 어민들이 비밀리에 동도에 건너간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민간에서는 송도=독도를 오키(隱岐)국의 소속이라고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 나아가 독도=울릉도가 조선의 속령임을 모르는 책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 없는 민간인의 인식은 영토 주권의 귀속에는 관계가 없다. ‘다케시마 일건’ 이후 막부의 영토 의식을 나타내는 자료로 관찬 지도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관찬지도 속에서 송도=독도를 최초로 그린 것은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일본여지도정전도』(1773년)이다. 이 지도는 경위선을 사용한 최초의 지도이기도 했다. 나가쿠보는 또한 목판 채색 인쇄한 『일본노정여지도』(1778년)를 간행했다. 이 지도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일본 본토와 그 부속 지에는 모든 채색이 있지만, 다케시마와 송도는 조선 반도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것이다. 즉, ‘다케시마 일건’을 답습한 이후의 관찬지도는 다케시마, 송도를 함께 일본 영토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고지도의 단계를 완전히 탈피했다고 하는 관찬지도, 이노우 타다타카(伊能忠敬)의 『대일본연해여지도』(1821년)에는 다케시마, 송도와 함께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즉, 거의 17세기 후반에는 다소 모호했는데, 겐로쿠시대의 조선 정부와 교섭을 거친 후, 막부는 송도=독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일본령이라고 보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 간단한 결론을 내리면, 일본인이 17세기에 송도, 독도에 대해 깊이 알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인이 조선령인 울릉도에 진출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국 정부의 협상에서 울릉도가 조선 소속으로 정착되었을 때, 그 속도인 송도=독도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일본의 판도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696년 1월 이후에도 안용복일행이 울릉도·독도 근처에서 일본어부들을 보았으며 그리고 일본에 와서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 도해를 금지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를 들어 막부에 의한 울릉도·독도 도해

23) 호리 가즈오 당시 교토(京都)대 교수는 1987년 발간된 일본의 한국사 연구잡지 「조선사 연구논문집」에 기고한 “1905년 일본의 竹島 편입”이라는 논문에서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과정에서 구체화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4) 『조선사연구회논문집』(1987) 제24집, p.4.

금지령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일본은,

“1696년 5월 안용복이 동료 10인과 오키에 나타났다. 돛토리번에 소송하러 간다는 등 그들의 진술한 내용은 오키에 있는 「겐로쿠 9 병자년에 조선배가 해안에 도착한 일을 기록한 한권의 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巻之覺書)」에 기술되어 있다. 돛토리번에 도착한 안용복인행을 보고받은 막부의 지시로, 가로(현재의 돛토리시 가로)에서 추방되어 귀국했다. 귀국한 안용복이 조선왕조의 군사향정기관인 비변사에서 말한 내용은 『숙종실록』에 기재되어 있다. 쓰시마번은 1696년 10월에 번에 온 조선사절에게 막부의 도해 금지 결정을 전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마쓰시마라고 불리던 현재의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조선과의 교섭에서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사실을 조선에 전한 쓰시마 번은 그 후에도 울릉도 도해 금지에 대한 조선의 事例章을 문체 삼았고, 또한 조선인이 쓰시마번을 통하지 않고 소송하러 한 사실에 대해 1699년까지도 계속 조선과 교섭을 했는데 이런 사실이 쓰시마번의 기록 『다케시마기사(竹島紀事)』에 기재되어 있다.”²⁵⁾

이처럼 일본은 당시 막부가 일본어민들에게 울릉도·독도는 일본영토와 관계가 없는 곳이니 도해하지 못하게 한 사실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어 부정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안용복의 울릉도·독도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특히 조선의 기록에 안용복이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²⁶⁾ 안용복의 당시 행위들을 조선정부가 스스로 부정한 것과 그리고 안용복이 1696년 1월 이후에도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보았다는 공술 등을 들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정부는 1696년 정월에 울릉도 도해가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일본인들은 울릉도에 가지 않았기에 안용복이 1696년 5월에 울릉도·독도에서 일본인을 보았다는 것을 포함해서 안용복의 진술을 믿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한국정부가 안용복의 과거행적을 내세워 울릉도·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부

25) 『竹島問題100文100答』(2015)에 대한 비판 경상북도 독도사료 연구회편, p.211.

26) “한국은 숙종실록(肅宗實錄)에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독도에 대해 일본의 영토침범에 항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숙종실록에는 쓰시마의 사신이“작년에 貴國人(조선인 안용복)이 소송하러 한 일이 조정의 명령에 의한 것인가”를 물은 데에 대해, 조선 조정은 어떻게 화답할까를 어전회의에서 상담한 기록이 있다. 대처 방침은 “만약 답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역관을 에도에 보내면 될 터인데 무엇을 꺼려 소란스런 포민(浦民)을 보낼 일이 있겠는가?... 태풍에 표류한 어리석은 백성이 무언가를 했다 해도 이는 조정이 알바는 아니다”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竹島問題 100問 100答』(2014) Will, p.189.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모순이 생기는 것은, 막부가 1696년 정월을 계기로 요나고(米子) 사람들에게 울릉도 도해를 금지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일본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안용복이 1696년 5월에 울릉도·독도에서 일본인을 보았다는 내용이 사실이고, 당시 조·일 간의 울릉도 교섭결과로 울릉도에 도해가 금지되었다는 것도 일본이 인정하고 있다.²⁷⁾ 그러나 일본은 당시 울릉도만 일본인 도해금지대상이었지 독도는 도해금지대상이 아니었기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696년 안용복관련 鬱陵島争界(일본에서는 죽도일건(竹嶋一件)이라 부름)가 발생하기 36년 전인 1659년에 오야 진키치(大谷甚吉) 무라카와 이치베에(村川市兵衛), 즉 오야·무라카와 가문이 기록하고 있는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울릉도·독도(竹島松島),’울릉도 안의 독도(竹島之内松島)’울릉도 근처의 소도(竹島近所之小島),’울릉도 근변의 송도(竹島近邊松島)’등과 같이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섬으로 또는 지금의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도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일본의 인식은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접양지도(三国接壤地図, 1785) 및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 1791)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6. 결론

일본 시마네현(島根県)은 올해도 어김없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2월 22일 현청소재 마쓰에시(松江市)무도관에서 이른바‘죽도의 날, 竹島の日’행사를 열었다. 올해로 11회째이다. 지난해 일본은 고등학교교과서에 독도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이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 가르치게 되었다. 한편 지난 1월 22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외무상이 일본국회 외교연설에서 3년 연속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다. 이는 작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한 이후 이제는 본격적으로 독도를 쟁점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는 이 연설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하고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2012~2013년 외무상의 외교연설에서는 “다케시마 문제는

27) 『竹島問題 100問 100答』(2014) Will, p.143.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후 2014년 외교연설에서부터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포함했다. 일본정부에 의한 독도영유권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동기는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다’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난 수년간 일본이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독도관련 영유권 주장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990년대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竹島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2003년 고등학교 교과서인 「最新日本史」(明成社版)에 “竹島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최초 등장했지만 그 영향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시마네현 고시 제41호’(1905.2.22.)의 독도 편입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 ‘竹島の 날’(2.22)을 조례로 정한 2005년부터 일본의 독도 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주장을 뛰어넘어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발간된 중학교 공민교과서(扶桑社, 후소샤)에서 “죽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기 시작한 뒤 2007년·2008년도 판 고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이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 “한국이 점거”라고 하는 교과서가 뒤이어 나왔다. 그러한 바탕 위에 2008년부터 일본 외무성이 앞장서서 竹島 홍보 팸플릿의 발간과 홈페이지의 ‘竹島’ 사이트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내외적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문부과학성이 독도교육을 정부차원에서 독려하고 나섰다.

그 결과 2008년 7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사용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통해 한·일간 독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기술하여 ‘독도’를 직접적으로 명기하고 나섰다. 그 이듬해인 2009년 12월 25일, 교사용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발표에 ‘독도’ 표현은 없었으나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라고 기술함으로써 사실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2010년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초등학교 사회교과서(5학년) 5종 모두에 독도영유권이 일본에 있음을 기술하였다. 2011년 3월 30일에 검정 통과한 교과서에서 모든 지리교과서 4종과 공민 7종을 포함해 역사 1종(7종 검정 통과)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현하였고, 지리교과서 1종과 공민교과서 3종이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을 하였다. 2012년 3월

27일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통과에서도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그대로 담겼다. 2013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기술했고 2016년 올해부터는 일본중학교에 배포되는 역사교과서 8종 모두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되어있다. 이처럼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은 과거와 현재를 떠나 미래에도 계속되리라 생각된다. 본 논문이 분석했던 중세이래로 일본에 의한 독도관련영유권주장은 과거 양국 정부 간의 외교문제에서 이제는 교육현장에 까지 파고들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독도교육을 시키는 것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의 행위가 비록 터무니없고 비정상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에 대해 대응을 게을리 한다면 일본의 억지주장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김기혁(2006) “일제 강점기 울릉도 지명의 생성과 변화” 『문화역사지리』 제18권 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김학준(2010) 『독도연구』 동북아역사재단, p.78.
 慎鏞廈 編著 『独島領有權 資料의 探究』 (독도연구보존협회, 1.2.3.4.5권).
 송휘영(2014) 『일본향토 사료 속의 독도』 선인, p.186.
 최장근(2014) 『한국영토 독도의 고유영토론』 제이앤씨, p.347.
 崔書勉(1981) 「古地圖から見た独島」 『統一日報』
 『세종실록지리지』 (1454) 권153
 隱州視聽合紀 독도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2007)
 「우리 땅 독도를 만나다」 동북아역사재단(2015)
 北圖通葬編 『竹島圖說』 (宝曆年間)
 『조선사연구회논문집』 제24집(1987)
 『竹島問題100文100答』 (2015)에 대한 비판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편, p.211.
 『竹島問題 100問 100答』 (2014) Will 3月号
<http://dokdo.mofa.go.kr/kor/index.jsp> (한국외교부 홈페이지, 접속: 2016.1.18)
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일본외무성 홈페이지, 접속: 2016.1.18)

논문 투고 일자 : 2016.03.10.

논문 심사 일자 : 2016.04.18.

게재 확정 일자 : 2016.04.28.

<要旨>

独島と日本の無主地先占論理

郭 真 吾

本論文では日本の独島領有権の主張において無主地先占論と固有領土論がなぜ問題になってるのかについて分析した。さらに、最近日本が主張している独島固有領土論の矛盾について指摘し、無主地先占の限界を明らかにした。日本が日露戦争中に独島を無主地先占という理由で侵奪したが、これは戦争を行なう上で独島が戦略的に重要だ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たからである。それで、以降日本の独島無主地先占の主張の限界は以前の独島無主地先占論が戦後独島固有領土論に変わる矛盾を犯し、これは韓国の独島固有領土論の主張と同じである。本論文では日本の独島無主地先占論と固有領土論主張の混用についての矛盾を指摘した。

Study on Japan's Claim over Dokdo based on the Theory of Terra Nullius

Kwak, Jin-O

This paper analyzes the origins of Japan's claim over Dokdo based on the theory of acquired terra nullius and the theory of inherent territory, and analyzes why the claim is problematic. Furthermore, this paper points out the controversy of Japan's later claim based on inherent territory, after it faced limits regarding the former claim of acquired terra nullius. Japan's claim over Dokdo based on the theory of acquired terra nullius originated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when Japan secretly seized Dokdo after realizing that it was a strategically important place. After facing limitations of its claim based on the theory of acquired terra nullius, Japan later referred to the theory of inherent territory, which was merely a rhetoric claim which closely resembled Korea's claim over Dokdo. Therefore, this paper points out that Japan's claim over Dokdo by mixing two theories of acquired terra nullius and inherent territory is inconsistent.